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8월 3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**8.30일(목) 11:00** 이후 보도 가능).

배포일시	2018. 8. 30.(목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보급과
담당과장	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	담 당 자	정대환 사무관(044-203-5372)

태양광·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시동

- 수출차 야적장 활용 최대 규모(100MW) 태양광 발전 협약식 -

- 국산 풍력발전 설비로 이뤄낸 경주풍력 종합준공식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·풍력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. 30.(목) **'현대자동차 태양광발전사업 공동수행 협약식'과 경주풍력 종합준공식** 행사를 가졌다.

□ 우선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**'현대자동차 태양광발전사업 공동수행 협약식'**에 참석하여 현대자동차, 한수원 및 울산시 관계자를 격려하고 협약식 개최를 축하했다.

< 협약식 개요 >

○ **일시·장소** : '18.8.30일(목) 13:00 ~ 14:00, 울산 롯데호텔
○ **참석자** :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, 하언태 현대차 대표이사,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, 현대커머셜 김병희 부사장 등 30여명
○ **현황** : 현대자동차 수출 야적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
* 울산공장 먼저 시행 후 현대자동차 그룹 내 확대 시행(100MW) 예정

○ '현대자동차 태양광발전사업'은 재생에너지 3020 발표 후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현대자동차, 한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,

- 민간기업 유휴부지(현대차 수출차 야적장)를 활용한 **최대 규모 태양광사업**(약 100MW)으로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일치하여 전력계통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하고 주민 반대 및 환경훼손 우려가 적었다.

○ 또한, 대면적의 태양광 설비가 수출차 야적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, 선적 대기 차량에 대한 차양(遮陽) 기능도 가능하다.

□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,

○ 지자체가 입지규제, 인허가 지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, 울산시의 적극적 행정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.

□ 한편,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오후에 **경주풍력 종합준공식** 행사에 참석하여 경주풍력 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축하했다.

< 준공식 개요 >

○ **일시·장소** : '18.8.30일(목) 14:30 ~ 16:00, 마우나오션리조트
○ **참석자** : 전우헌 경북 부지사, 박차양 경북도의원, 이동협 경주시의원,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, 윤창운 코오롱글로벌 사장, 최경식 동국S&C 전무, 김신 SK증권 사장, 류지윤 유니슨 사장 등 130여명

○ 경주풍력 2단계 사업은 **정부 연구개발(R&D)로 개발**된 저풍속형 풍력시스템(유니슨 2.3MW)이 적용되어 국내 풍력기업의 실적(Track-record)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,

* 저풍속 2-3MW급 풍력시스템 개발 : '12.10～'15.9, 75억원 (정부 51억원)

- 경주풍력발전단지는 총 40.5MW규모*로 연간 11만MWh 전력생산을 통해 약 3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

* 1단계 : 16.8MW (풍력연계 ESS 9MWh), 2단계 : 20.7MW

○ 이 사업은 풍력기자재 개발, 발전소 건설·운영 과정에서 **지역인재**를 **채용**하는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**지역 경제 활성화**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된다.

○ 이번 경주풍력 준공으로 향후 동서발전이 추진하코자 하는 600MW 규모의 **동해안 윈드벨트** 프로젝트가 가시화

* '26년까지 경주풍력를 포함 13개 육상 풍력사업을 추진 중으로 경남 양산부터 강원도 양양까지 동해안에 600MW급 육상풍력 단지 조성 추진

□ 준공식 축사를 통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,

○ **국내 풍력 제조기업**들의 일감부족으로 **경영난이 심각**한 상황임을 인지하고, 이번 경주풍력의 성공적 준공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**국산 터빈에 대한 인식전환**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, **풍력 보급확대**가 **일자리 확대**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정대환 사무관(☎ 044-203-53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